

창건 120주년 맞은 광법사

10월 6일 산신제 · 산사음악회

군산 광법사(주지 명각)는 10월 6일 창건 120주년을 맞아 산신제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산신기도 후 열린 산사음악회는 차공양 시연을 시작으로 명각 스님의 법고시연, 살풀이, 퓨전 난타공연, 가야금 연주, 색소폰 연주, 초대가수 공연 등이 진행됐다.

광법사 주지 명각 스님은 "광법사는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힐링 장소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며 "창건 120주년을 맞아 대중에게 회향하는 의미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법사는 창건주인 송암 스님이 과거 수행정진하던 중 호랑이가 쌀을 씻는 스님을 위해 불을 밝혀줬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호암바위가 있는 도량이다. 매년 봄 · 가을이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인근 학교의 소풍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난치병 어린이에 통 큰 기부

배우 수지, 생명나눔에 1억 원



가수 겸 배우 수지<사진>가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남몰래 1억 원을 기부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수지는 10월 10일 자신의 26번째 생일을 맞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에 생명존중 확산 운동과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수지가 생명나눔과 인연을 맺은 것은 그의 어머니 덕분이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수지 역시 백혈병, 소아암 등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 지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난치병 어린이 지원을 위해 지난 2016년 생명나눔에 1억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6년 'Let's share the heart' 캠페인을 통해 44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으며, 생명나눔이 연말을 맞아 달동네 백사마을 주민들을 위해 펼치고 있는 '따뜻한 정 나누기' 행사에도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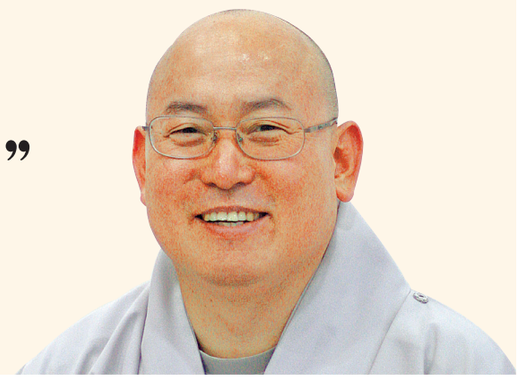
현재까지 수지가 생명나눔에 기부한 금액은 4억 원에 달한다. 생명나눔은 수지가 기부한 1억 원을 백혈병, 소아암 등의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포교성과 얻은 10년 찾아가는 불교 다짐"

Interview

창건 10주년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도심포교 성공 모범 사례
시대 변화에 새 시도 나서
유튜브 '불바보TV' 개국

"절에 오지 않는 불자와 비불자에게도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할 방법을 모색하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와 청소년 및 어린이를 위한 포교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서 도심포교의 선두주자로 활동하며 포교 성공을 이룬 대광명사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주지 목종 스님은 10월 10일 기자를 만나 '바른 불법'을 강조하며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는 것만이 포교의 성공 열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뉴미디어를 활용한 포교 방법이 앞으로의 포교전략에 주를 이룰 것이라며 최근 개설한 유튜브 채널 '불바보TV'의 취지를 설명했다. '불바보'는 '불교를 바로 보자'를 줄인 표현이다.

"10년 전 포교를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입니다. 오직 정법을 전할 때 포교는 자연스레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 때 불법으로 삶이 변하고 우리는 진정한 불자가 됩니다. 불자가 절에 오고 불교매체를 통해 공부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집중적으로 불법을 전해야 할 사람은 비불자들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입니다.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불법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불바보TV'는 목종 스님이 활동했던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회' 인연들이 모여 시작하게 됐다.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회는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지난해 말 정식 회향했다. 위원회는 사라졌지만 포교 열정은 그대로 간직한 스님들과 재가자 인연들이 모여 지속적으로 포교 방안을 모색했고, 지난 8월 6일 '불바보TV'를 정식 개설했다.

프로그램 진행은 목종 스님을 비롯해 BTN불교TV '울림' 진행자 운성 스님과 재가 실무자들이 동참한다. 목종 스님은 '한통속'과 '활발발'이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통속'은 티베트 밀교, 초기불교, 선불교 등 여러 모습으로 나눠진 불교가 본래 하나이며, 부처님이 전하고자 하는 법도 하나임을 강조한다. '활발발'은 생활 속에서 불교가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보다 나은 신행생활을 조언한다. 이외에도 불바보TV에는 달라이라마의 핵심법문을 전하는 '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불교 의식 및 사찰 용어 등을 설명해주는 '이뭣꼬' 등이 있다.

목종 스님은 앞으로 불교가 가야할 포교방향이 '찾아가는 불교'라고 힘줘 말했다. 더 이상 대중이 절에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포교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목종 스님은 대광명사 10주년을 맞아 10월 13일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 '가을, 빛의 소리장엄-대광명사 개원 10주년 기념 합창공연'을 개최했다.

"이제 우리는 사찰을 찾아오지 않는 불자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작업을 할 때입니다. 부처님 정법으로 마음을 열고, 모든 이를 품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신라문화로 민족 정체성 회복"

불국사, 신라불교 영산대재 소외이웃에 1000만원 기탁


경주 불국사가 10월 4일 신라문화제 일환으로 신라불교 영산대재와 평화통일 기원대재를 봉행했다.

조계종 제11교구본사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10월 4일 경내 무설전에서 제47회 신라문화제 문화예술행사 일환으로 신라불교 영산대재와 평화통일 기원대재를 봉행했다. 이 행사는 불국사를 창건하고 중흥시킨 역대 조사를 추모하는 자리로, 불국사는 법흥왕과 이차돈 성사, 표훈 · 원효 대성사, 월산 대종사 등을 기렸다.

또한 500여 명의 사부대중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했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은 "찬란한 신라문화와 삼국통일 정신을 이어 한민족 정체성 회복과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영산재는 불교적 의식이기는 하지만 무명에서 허덕이는 중생들의 눈을 뜨게 하고 선조들의 은공을 생각하면서 그 공덕을 찬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은 주낙영 경주시장에게 소외이웃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해 영산재의 의미를 더했다. 성금은 (사)경주외국인센터에 지원될 예정이다.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은 "신라불교 영산대재 행사를 통해 성금을 기탁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웃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후에는 보살계 수계가 진행됐으며, 불국정토 구현의 서원과 모든 중생들의 자유와 편안함의 나날이 되길 발원하는 탑돌이가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지혜 닦는 삶 살아가자"

해인사 원당암, 조상영가 합동천도법회



해인사 원당암은 10월 7일 중양절을 맞아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이 법사로 참석한 가운데 선망 부모 · 조상영가 합동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서 원각 스님은 "불자들은 자기 주장, 사상, 철학을 내려놓고 근본 마음자리에서 자성을 깨달아 생사의 도리를 깨쳐 복도 짓고, 지혜를 닦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행복 찾아 떠난 법문여행

부산불교지도자포럼, 혜민 스님 초청법회



부산불교지도자포럼(회장 정종원)은 10월 4일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혜민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혜민 스님은 행복에 대한 참 가치와 뜻을 전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행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당부했다. 법회는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정종원 회장, 김수현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승불교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부산 서림사서 현각 스님 철학 강의 등



(사)한국대승불교조계종은 10월 8~9일 부산 서림사에서 승려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종단스님 20여 명이 참여해 불교철학에 대한 현각 스님 특강과 혜관 스님의 불교의식 집전, 성군 스님의 참선 이론 및 실습 등의 교육을 수료했다. 현각 스님은 교육에 앞서 "수행자는 지속적으로 자경하고 발심하라"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 (청계로 475)
전화 031)426-2348, 2221
전송 031)426-3666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주지 목종

사부대중일동

대광명사 서울분원 지금선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5길 20 서주빌딩 5층
TEL 02)522-7772 FAX 02)522-366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로데오아울렛 3층)
TEL 051)742-7610 FAX 051)742-7606 www.daekangmung.com